



27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이 넉넉한 품으로 광주시가지지를 안고 있다. 무등산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굴곡진 현대사를 광주 시민과 함께 해왔다. <헬기조종 광주시소방항공대 박창순 기장, 문연석 부기장>

# 광주 도시 브랜드 가치 확 높아진다

##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의미와 과제

### 국비투입 생태계 보전·공원 복원사업 가속 공원 부지내 사유지 매입 예산 확보 급선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원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다양한 공원 시설이 확충된다. 또 권입부지 매입을 비롯한 관리주체의 변경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공원관리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대신 공원보호를 위해 야간산행 금지 등 탐방조건은 까다로워진다.

◇면적 2.5배 늘고, 132개 시설 확충=면적은 ▲광주 북구 26,865km ▲동구 20,789km ▲화순군 15,802km ▲담양군 11,969km 등 광주·전남 4개 자치단체 75,425km다. 이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30,230km의 2.5배 규모다. 따라서 탐방로 등 시민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탐양과 화순의 그린벨트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효과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내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국비투자로 각종 공원

사업 추진 및 시비 절감, 전문적 공원 관리로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가속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야생 동·식물 보호가 이뤄져 수많은 국내외 탐방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인 효과와 주상절리대 세계유산등재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산로 정비와 탐방안내, 수목병해충방제 작업에 필요한 연인원만 2만명으로 추정되는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관리, 비용도 부담=관리주체가 광주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할 때 규제가 강화돼 시민들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무등산이 광주도심에 위치해 있고, 지역민의 무한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라산의 경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관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던 공원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고, 공원관리 예산도 현재 연간 2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리인력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등산로 정비와 탐방안내, 수목 병해충방제 작업 등 연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입산객 탐방 제한 강화=과거 국립공원보다 자연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광주시민의 입장에선 예전에 비해 입산 통제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행위를 어기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원의 청소를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주차·취사·상행위 ▲비탐방로 출입 행위 ▲자연 훼손 우려 있는 도구(톱, 도끼 등)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개, 고양이 등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행위 ▲계곡에서 목욕 및 세탁 행위 ▲일몰후부터 일출2시간 전까지 입

산행위 등이 제한된다.

◇정상 군부대 이전 등은 해결과제=무등산 국립공원의 새단장을 위해서는 국비지원 등 국가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광주시가 공원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97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도 예산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해선 안된다. 특히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비 보상도 하루빨리

### ▲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일지

- 1972년 무등산 도립(자연공원 지정)고시
- 1987년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 1996년 중봉지역 공군부대 이전
- 2000년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23세대 이주
- 2002년 누애봉 KT 제1중계소 철거
- 2005년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지정
- 2010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 및 중심사 지구 91세대 철거
- 2011년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 2012년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이뤄져야 한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 방송·통신시설(5곳) 통합도 필수 해결과제다. 군부대 이전 비용과 방송·통신시설 통합 노력과 함께 관련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광주시 '국립공원 프로젝트' 결정적 역할

## 주민·지자체 설득 독심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민선 5기 광주시의 '국립공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립공원인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려는 노력은 민선 5기 이전인 지난 2000년 초부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광주시와 인근 지자체 등이 추진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그러던 중 강운대 광주시장이 2010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민선 5기 역점시책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면서 재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강 시장은 같은 해 12월 환경부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데 이어 시민의견 수렴, 중앙부처·인근 지자체와 협의 등 특유의 빠른 추진력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현실화했다.

추진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광주·전남 4개 지자체가 무등산 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탓에 이해관계가 얽혀 협의의 자체가 무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재산권 제약 우려한 토지 소유주

의 반발도 이어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민설득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수시로 열고, 반대하는 주민은 수십 번씩 만나 설득했다. 광주시의 진심에 국립공원 지정을 강력 반대했던 무등산 인근 주민들 사이에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을 보호하자'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오히려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된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국립공원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예초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환경부도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를 높이 평가해 찬성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광주시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무등산 군부대 정상개방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4년동안 국립공원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150만 시민 건강 챙기는 '녹색허파'

### ■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은?

무등산은 광주의 동쪽 가장자리와 담양, 화순에 걸쳐 우뚝 솟아있는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이며 남도민의 신산(神山)이다. 산세가 유순하고 동서남북 어느곳에서 보나 동그스름한 모습이 한결같이 '어머니의 산'으로도 불린다.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150만 인구의 대도시를 품고 있는 무등산은 시민의 심신을 달래주고, '녹색허파'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연간 700여만명이 이르는 시민들이 무등산을 오르고 있으며, 광주가 전국 건

장도시 1위를 계속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무등산 이름의 변천사='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무등산(無等山)은 백제 이전까지는 무물이나 무당산이라 불려졌다. 통일신라 때는 무물의 이두음인 무진악(武珍岳) 또는 무악으로 표기하다가 고려 때부터 서석산이라는 별칭과 함께 무등산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에서 무등산의 산 이름이 기록에 나타난 것은 삼국사기에

무진악이라 표기된 것이 처음이다.

◇무등산 지키기 운동=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천연 원시림의 모습을 간직했던 무등산은 일제의 제2차 세계대전 도발과 전쟁물자 고갈에 따른 연료난으로 산림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산림훼손은 광복후 건축 붐과 나무연료 사용으로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고, 무등산은 말그대로 '민둥산'으로 변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나뭇잎이 일면서 휴일평균 5만명이 넘는 행락객들이 무등산에서 취사행위를 일삼는 등 곳곳이 오염되기에 이른다. 이를 막기위해 1989년 시민들의 주도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창립된다. 1994년에는 '시민 모두가 주인이 돼 무등산 자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망권을 보존하고 지키자'라는 뜻을 담아 '무등산 공유회'도 시작됐다.

◇항쟁의 거점, 가사문학 탄생지=무등산에는 고려말 왜구를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정지 장군,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 장군, 청나라에 맞서 싸운 전장의 장군의 사당이 있다. 의병장 고경명도 무등산 기슭에서 봉기했고 구한말엔 고광순 장군이 활약했다. 무등산은 주옥같은 가사문학의 탄생지다. 송강 정철이 '성산별곡'을, 면앙정 송순도 '면앙정가' 등을 이곳에서 지었다.

국문학사에 높이 평가되고 있는 대문호의 가사문학 16편이 무등산 자락에서 나왔다. 이들의 활동 공간이 된 석영정, 송강정, 면앙정, 독수정, 소재원, 환벽당 등 정자가 무등산 자락에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보험은 사랑입니다

## 2013년 삼성생명 사랑 사랑 컨설턴트 대모집

2013년 삼성생명은 금융업계를 선도하고자 교육, 소득, 활동 등 **全** 부분에 대한 제도를 재정립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13년 삼성생명 컨설턴트를모집합니다. 13년 삼성생명의 변화와 도전에 함께 해주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삼성생명 육성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교육 이수 후 등록하면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 이수기준 : 동의서20매, 보장분석8매, 가입설계6매, 변액모의test 50점, 신계약1건

### 교육시스템 강화

초기 교육기간 3개월로 확대

- 3개월간 금융지식, 자격증 취득,
-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기회 제공

### 소득지원 강화

정착지원비 및 교육훈련비 지급

- 첫달 교육훈련비(150만)지급 (교육이수 및 조건 충족시)
- 교육정착비 최대 50만 지원 (3차월 30만, 5차월 10만, 7차월 10만 -- 조건 충족시)

### 경력자 우대지원

수수료체계 이원화(A/B선택)

- 2차월부터 최고급회(명인)가능

### 영업활동 지원

태블릿PC 사용료 2년간 지원

- (환산45만달성 및 조건 충족시)
- 파이낸스카페 활동 및 제휴이벤트

삼성생명 **SAMSUNG**

소속·성명 : 호남지역사업부 영업지원팀 승인번호 : 기타 제360-12-89호(12.12.26)

## 빛의만평

- 김중두

지겹다. 빨리 가그라